

〈3부〉 농업은 생명산업

⑤ 발효산업

약이 되는 음식... 발효시킨 농산물 3배이상 부가가치



사회적기업 콩새미 F&B 국영에 대표가 산야초 발효효소가 담겨있는 용기독을 열고 숙성정도를 살펴보고 있다. '다산비방'을 토대로 한 발효효소는 화학적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콩새미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경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참살이' (well-being) 열풍에 힘입어 발효(醱酵)식품이 도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발효식품은 김치와 전통주, 된장·간장·고추장 등 전통 장류뿐만 아니라 차(茶)·식초·음료·화장품·축산사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발효식품은 시장규모가 커지며 발효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발효는 미생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이다.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질이 만들어지면 '발효'이지만 악취가 나거나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지면 '부패'라고 한다. 국내 업체에서도 발효 효소와 건조 청국장완 등 '발효'를 무기로 국내의 시장개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류 및 발효식품류 총출액은 ▲2007년 182억5522만원 ▲2008년 264억5388만원 ▲2009년 304억295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표 참조>

◇발효효소 시장 노크 '콩새미'=강진권 성전면 옛 성전고등학교에 자리한 '콩새미 F&B'.

콩새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과 여성가장, 국제 결혼 이주여성 등 50여 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노인들이 소량으로 생산하는 잡곡류를 집중 매입,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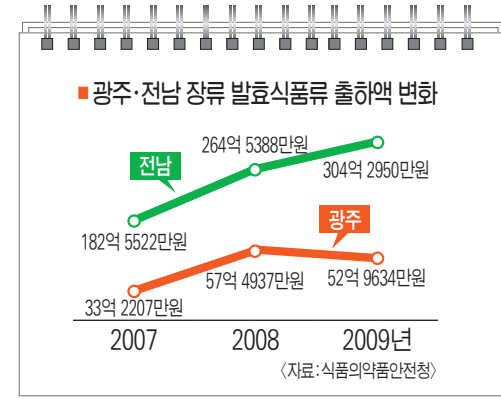
콩새미는 발효 효소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우리 밀 빵과 산야초 발효된장·고추장, 쿠키, 파프리카 잼, 장아찌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야초 발효효소는 콩새미의 대표적 상품이다. 빵을 만들 때도 이스트 대신 발효효소를 사용한다.

운동장 뒤편 산야초 발효 효소실에 들어서자 12말들이(120ℓ) 용기 240여 개가 열을 지어 가지런하게 놓여 있다. 용기 표면에는 무화과·패시감자·환삼덩굴 등 산야초 재료와 담긴 날짜가 적힌 명찰이 붙여져 있다.

용기 내에는 산과 들에서 채취한 온갖 산야초들이 숙성되고 있는 중이다. '다산비방'을 토대로 꼬박 3년을 발효·숙성시킨 후어야 제품으로 출시한다. 용기 역시 항균작용과 탈취효과가 뛰어난 강진산 맥반석 용기 독을 사용한다.

국영에(51) 대표는 "다산 정약옹 선생은 '자연의 기운을 담은 산야초야말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자연의 보고'라고 기록했다"며 "우리 몸은 인위적으로 효소를 보충해줘야 한다. 효소는 오래 숙성할수록 약효가 좋아진다. 발효식품을 먹으면 효소를 보충해줘 소화효수를 돕고 면역력을 키워 건강해지고,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고 말했다.

콩새미는 발효식품의 세계화를 고민하며 전남대 발효과학 연구소(소송방 교수)와 1년여 연구 끝에 지



참살이 열풍에 음료·화장품으로 확산

효소·건조 청국장완 등 시장개척 활발

농가소득 증대·노인 일자리 창출 기여

영양·저장성 탁월 세계 공략무기 부상

난 2월 짙게 조갯 아몬드와 우리 콩, 산야초 발효효소를 이용한 '아몬드 발효 청국장' 개발에 성공, 특허를 출원했다.

◇중국 시장 개척, (주) 명정=해남군 옥천면에 위치한 (주)명정식품(해남 자연농업 영농조합법인)은 지난달 20~24일 중국 화북성 한단시와 석가장시에서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식품영양 학계의 일로인 박원기(82·전 한국 식품

영양과학회) 고문은 이번 강연을 통해 '심혈관 질환의 예방·치료 및 건강의 식이요법'을 주제로 우리나라 청국장의 효능 등을 강조해 500여명의 중국 소비자들의 열띤 반응을 얻었다.

(주)명정은 이미 7년 전에 중국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개설된 대리점 수만 해도 지난해 350개에서 올해 800여 개로 크게 늘어난 전망이다. 유럽 독일시장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주)명정은 계약재배한 100% 해남산 콩을 농협을 통해 사들여 청국장 완·청국장 분말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명정의 새로운 제품개발은 박 고문을 비롯해 전남대 박노동 교수(미생물), 목포대 이오영 교수(미생물) 등 자문위원들의 기술지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박 고문은 단순히 콩을 발효시키는 단계에서 한발 나아가 단백질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하나인 '아르기닌'(arginine) 성분이 많은 전통 천연식품을 넣어 '심혈관 예방을 위한 바실러스 균주에 의한 대두(大豆) 등의 저질 발효 산물의 제조방법'을 새롭게 개발, 지난 2010년 10월 특허를 받았다.

(주)명정 박경희(71) 개발부 이사는 "1차 농산물을 그대로 수확하는 것보다 콩을 가공하게 되면 3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중국 낫토(納豆=삶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일본 전통음식) 시장은 10조원 규모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일본 낫토보다 한국산 제품 성분이 좋고, 발효 기술도 좋다고 생각한다. 더욱 좋은 제품을 생산하려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데 정부 보조가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세계화 위한 선결과제

생산공정 제각각... 표준화·과학화 시급

세계시장에 통하는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공정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에 따르면 우선 장류 제조공정에 대한 '표준화'가 절실하다. 간장을 예로 들면 염도(鹽度)를 판단할 때 달걀을 이용하거나 경험치로 가름한다. 따라서 업체마다 장맛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된다. 세계시장에 진입하려면 동일한 맛을 가져야 한다.

또한 청국장 등에 사용하는 종균을 배양하는 등 발

효조건을 관리해야 한다. 일본 대표적 발효식품인 '낫토'와 청국장은 발효과정에 큰 차이가 있다. '낫토'는 삶은 콩에 낫토균을 넣어 발효시켜 생것으로 먹는 반면 청국장은 지푸라기 등을 이용해 공기중의 호기성 바실러스(Bacillus)균이 침착하도록 하고 있고 대개 끓여 먹는다. 하지만 청국장을 끓여 먹지 않으면 유익한 바실러스균이 죽게 된다. 업체들이 냉동건조 청국장이나 청국장분말 개발에 나서려는 이유다.

한국농어촌공사 후원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속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정원이사 010-8227-7759.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광주대입(지하)호프 분식60명원룸형빌라(산수동,백운동)5칸, 게임동 E마트1층1칸 대출+보증금금제후 실인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일반상가 건물: 3억에서 50억, 모텔 및 목욕탕, 고시원, 다가족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지역: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면적: 200평~300평, 용도: 자연녹지, 전용지, 준주거, 참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대매가 8억4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구매>: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안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매>: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공장 참고용도로 적합,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물류창고부지: 장성군 황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빌딩, 대인동 소행서관내편)

첨단 신창동 신가동. 파실분 환영! (8억~12억계약가능) <매수자 대기중!> 파실분 토지매매. 원룸 파실분 매원형! (매수자 다수 대기중)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익률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파실분 → 빠른 계약가능! 사실분 → 원하는 땅 구해드립니다! 우리공인중개사. 일곡지구 중심상가 밀집지역내 위치 010-3622-6076 062)576-8484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봉산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억), 보종동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봉산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 1,730만원(21억), 보종동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첨단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7만원(14억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구암동7층건물 164평 건물액600평(31억), 임대보증금 5억5천 월1,500만원. 토지(매매): 상무지구 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흥가정,석당영업중), 상무지구 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화가 시키리코너), 상무지구 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유흥가정), 상무지구 3,400㎡(9,100평) 평당 750만원(시암일) (회사사무,오피스텔등 적합), 동림지구 준주거지 500㎡-하남 간대로변 4,470㎡(9억 352평) - 평당 330만 (에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찾아 드립니다.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이웃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0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동 김차량 1층)